

# “전두환이 자랑스럽다니…” 합천 찾은 광주시민들 개탄

5·18재단·합천군민운동본부 등 주최  
일해공원·전두환 생가서 퍼포먼스  
명칭 변경·기념사업 금지법 등 촉구  
“세금 운영 안돼…정부의 역할 기대”

“독재자를 미화하는 공원의 이름을 하루빨리 바꾸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으로써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 입구에선 5·18 역사 왜곡 현장 탐방'에 참여한 광주시민 50여명이 “일해공원 폐지해서 역사 왜곡 바로잡자”는 구호를 외치며 ‘일해공원 폐지법안 지금 당장 발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비석에 씌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탐방은 2004년 조성된 ‘새천년 생명의 숲’이 2007년 당시 합천군수에 의해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해(日海)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공원 이름과 관련 기념물의 철거, 기념사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퍼포먼스 후 일부 참가자들은 ‘일해공원’이라고 새겨진 대형 비석 뒤편에 ‘3·1독립운동기념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시민 등 50여명은 지난 21일 전두환의 아호를 딴 경남 합천군 ‘일해(日海)공원’을 찾아 공원 명칭 변경과 기념사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세상에 전두환이 자랑스럽다니’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비석에 씌우고 있는 퍼포먼스. /주성학기자

탐’이 나란히 세워진 모습을 보고 “독립운동을 기리는 공간에 독재자를 찬양하는 조형물이 있다는 건 심각한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탐방에 동행한 나수민 (16·광주 수완고)양은 “학교에서 전두환이 어떤 인물인지 배웠다. 그를 기념하는 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공원의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광주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내란법을 찬양하는 기념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사안이 아닌 민주주의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

로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후 참가자들은 군청으로 이동해 ‘전두환 대통령 기념식수’ 표지석 앞에 대법원 판결문 사본을 내려놓고 발로 밟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전두환의 범죄 사실을 환기시켰다. 해당 표지석에는 1980년 9월 전두환이 군청을 방문해 기념수를 식

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지난해 12월 한 차례 철거됐으나 최근 합천군이 복구했다.

5·18기념재단 측은 현장에서 합천군청 관계자에게 ‘12·12 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반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전두환 (대법원 96도3376), 1997.4.12 판결선고 유죄인정 무기징역 확정’ 등의 문구가 담긴 판결문을 전달하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후 마지막 일정으로 전두환 생가를 찾은 참가자들은 짙은 짙은 지어진 생가 입구 안내판에 적힌 ‘전두환 대통령은 단임 약속을 실천해 1988년 2월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설명을 지적하고 해당 공간이 현재까지 국비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과 기념물은 모두 철거하고, 기념사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탐방을 마무리했다.

고동의 생명의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간사는 “광주시민들이 직접 나서줘서 감사하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은 “전두환 생가 등의 기념시설이 세금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전국의 관련 기념시설을 조사하고 철거할 책임이 국가에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성학기자

## “항철위, 조사 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 2기’ 발족  
출범식…단체명에 ‘무안공항’ 명시  
전남경찰 “수사 대상 피의자 24명”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기 발족을 공식화하고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조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무안공항 2층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 앞서 지난 5월 유가족협의회는 ‘2기

대표단’을 꾸렸고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단체명에 ‘무안공항’을 넣었다.

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을 지원하고 함께 싸워줄 든든한 공식 단체가 됐음을 선포한다”며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179명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현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항철위 독립 ▲엔진 손상 부위·블랙박스(FDR·CVR) 데이터 공개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사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라며 “항철위는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수사 대상 피의자가 24명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유가족 측에서 고소한 제주항공 대표와 국토부 장관 등 외에도 관제·조류 예방·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이 포함됐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건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영기자

### ‘학동 참사’ 대법 판결 내달 3일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사고 4년여 만에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다원이앤씨 관계자들, 백술건설 대표 등 7명과 현산 법인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까지 피고인으로 백술건설과 한솔기업 법인도 있었으나, 이들은 앞선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백술건설 대표, 한솔 현장소장, 철거 감리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4명은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학동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사는 이들은 2명 뿐이다. /안재영기자

## 제석산 구름다리서 또 추락…올해만 세 번째

철망에 떨어져 생명 지장 무  
남구 “방지 시설 공사 속도”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또다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광주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55분께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 아래 낙석 방지용 철망에 사람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A (40대)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A씨는 의식을 찾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9년 설치된 제석산 구름다리는 인근 상등성을 연결하는 보행 교량으로 올해만 2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첫 사망사고가 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7명이 숨졌다.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관할 지자체인 남구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에 나섰으나 이번 사고 전까지 관련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

악됐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20일 공사 착수를 위한 관계자 만남을 진행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 건설업체 ‘차명 운영’ 의혹 곡성군의원 압박

현직 곡성군의원이 건설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공사 추수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곡성군의회 A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압수수색을 실시,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 의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지위를 이용해 지자체 사업 계약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당초 A씨가 운영을 하다 공직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다른 이에게 넘기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안재영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